



사별가족 관리

한호협 출판부

1. 용어의 정의

- 사별 : 친밀한 이를 죽음으로 잃어버린 상황
- 슬픔 : 사별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반응
- 애도 : 슬픔의 사회적 표현
- 친밀함 :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성향,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이 바뀌게 됨.
- 급성슬픔 : 죽음을 알자마자 즉시 발생하는 슬픔, 속이 뒤집힘을 느끼고 기절 할 수도 있으며 호흡과 심박동이 불규칙하게 됨.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자 사후의 가족 돌봄

호스피스의 중요한 돌봄 중의 하나가 환자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를 섬김만이 우리의 섬김이 전부가 아니라 치료 중의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가 남겨 놓은 사별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까지도 지지(care)해야 하는 것이 호스피스 돌봄이며, 이때 그 환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말기환자 가족이 갖는 바램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 (1) 환자에게 가능한 무슨 치료의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고 싶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한다.
- (2) 환자가 병을 갖고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 (3) 그렇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고통이나 괴로움이 적기를 바란다.
- (4) 또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연히 회복되어 주기를 바라며, 그래서 치료 불능이란 단어를 상
기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4가지 모두 아무런 모순 없이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생명은 오래가기를 원하면서 괴로움은 짧게 해주기를 바라나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실제로는 환자나 가족의 괴로움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호스피스는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게

반응하는 법을 찾아 돌보아야 한다. 환자의 임종 때까지 투병생활과 보조를 함께 하여 견뎌다는 자세를 갖도록 환자의 가족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환자가 임종하고 나면 환자 개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난다. 모든 사회적인 책임으로써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는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남게 된다.

남편(아내), 부모(자식), 형제(자매)를 잃고 난 후 결혼 된 피붙이에 대한 정서적 빈자리는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상당기간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남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을 우선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되면서부터 아내의 역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누려왔던 모든 일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모든 일들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됨으로 오는 혼란은 이 아내가 안정을 찾아가는데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때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이들의 사소한 삶의 변화까지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또 남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를 상실함으로 오는 그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남편들은 아내보다 적응력이 약하고, 자녀양육이나 교육문제, 살림의 제반 문제 앞에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적응하는데 호스피스 봉사자가 섬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전통적으로 어린이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자라가며 치유되었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의식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이들이 어릴 때 받은 상실감의 무게는 어른이 되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맞는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관심이 이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사별 후 가족들을 돌보는 기간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집중적으로 자신들이 독립하여 새로운 삶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 주기 위해선 6개월에서 1-2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공동체적인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모임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일반적으로 남은 가족들의 슬픈 감정도 호스피스 대상 환자가 죽어가며 겪는 것 같은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부(denial)와 분노(anger), 직면(encounter), 조종(reconciliation)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모든 단계들을 전부가 공통적으로 거친다고는 확언할 수는 없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